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발전 방안 모색

성지은* · 조윤희** · 박인용***

I. 서론

혁신시스템을 둘러싼 제반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혁신정책의 영역과 목표, 대상 역시 달라지고 있다. ‘R&D→혁신→상업화’의 선형 혁신모델에 의한 경제성장은 그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영향이 산업 외 부문(보건·의료, 환경, 지역개발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혁신정책의 목표 역시 경제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성 및 경제·사회전반의 발전으로 확대되었다(성지은·송위진, 2007). 이는 혁신정책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지역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혁신주체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관련 정책 영역 간, 혁신주체 간 연계·통합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성지은 외, 2013: 5).

최근 농업·농촌개발 정책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농업·농촌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한 ‘식량생산 증대’(농업·농촌 1.0)에서 ‘산업화’(농업·농촌 2.0)로, 다시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공간형성’(농업·농촌 3.0)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개발활동과 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 또는 농업·농촌 각각의 측면을 아우르는 ‘제3의 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스페인, 핀란드 등의 주요국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정책-R&D 영역의 상호활동과 연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혁신논의에서 혁신연계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혁신시스템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혁신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행위자 간의 가치·규범과 같은 인지적 격차,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 격차, 관리경영 격차, 시스템의 경로의존성 및 고착화 등과 같은 시스템 격차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격차는 특정 혁신활동이 특정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될 때 두드러지며, 결국 혁신시스템 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유리되어 있던 혁신주체와 혁신활동 의제, 자원 간 연계작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중개인(systemic intermediaries)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다(Klerkx and Leeuwis, 2009: 850).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전환, 농업·농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행위자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연계조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농업·농촌 개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문경, 완주의 중간지원조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284-1784, jeseong@stepi.re.kr

** 조윤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284-1862, destiny0305@stepi.re.kr

*** 박인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284-1877, penguin@stepi.re.kr

II. 혁신연계조직

1.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의 개념, 기능, 유형

1) 혁신연계조직의 개념 및 기능

혁신연계조직은 중개조직, 지식브로커, 혁신브로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Howells(2006)은 혁신논의에서 중개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중개조직(innovation intermediary)을 정의한다. Howells(2006: 720)은 혁신중개조직이란 “혁신과정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parties) 사이에서 대리인(agent) 혹은 중개자(broker)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①잠재적 협력자에 대한 정보제공 ②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 중개(상호작용 중개) ③협력 당사자 사이의 조정 ④협력당사자들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조인·자금조달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반면, 지식브로커(knowledge broker)로서의 연계조직은 행위자 간 연계의 주제(또는 수단)를 혁신활동과 관련된 지식에 집중하는 양상을 띤다. Lind와 Persborn(2000)은 지식연계 활동을 수요자(questioner)와 공급자(knowledge resource)가 상호문답을 통해 지식교류를 시행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때 지식브로커는 양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위자 간 연결을 비롯하여 지식교환 인프라, 의제의 외부화 및 통역, 문제해결에 적합한 지식(knowledge resource)의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주체 간 연계·고도화와 문제해결력 제고를 도모한다(Lind and Persborn, 2000:7). Batterink et al.(2010)은 혁신브로커(Innovation broker)의 역할을 중소기업·연구기관 등 개발주체에 새로운 개발 이슈를 연계하도록해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후 사례분석을 통해 혁신활동 개시, 네트워크 구성, 혁신프로세스 관리를 혁신브로커의 주된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Knowledge Brokers' Forum에서는 2010년 온라인토론을 통해 중개 개념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Fisher, 2010). 이들은 ‘broker’를 ‘intermediary’라는 표현보다 대상자의 변화나 혁신과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으로 인식했다(정미애 외, 2013: 38). 이 논의에서는 기능을 기준으로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ies or infomediaries), 지식중개인(Knowledge intermediaries or knowledge translators), 지식브로커(Knowledge brokers),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s)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보중개인은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하며, 정보를 모으고 자료화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지식중개인은 행위자들이 정보와 이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번역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식브로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식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연계조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협력관계 및 프로세스 구축, 협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정보중개인, 지식중개인, 지식브로커, 혁신연계조직으로 갈수록 혁신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혁신연계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고도화될수록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새로운 지식의 소개에서 매치메이킹, 협업을 거쳐 조직형성, 학습까지 확산되어 시스템 전체 수준에 도달한다. 그 가운데 혁신역량(지식)의 확산 역시 ‘생산자→사용자’의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 생산자-수요자의 ‘공동창조(co-production)’로 진화하며, 양 측의 연결 자체도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혁신연계조직 활동의 개념적 스펙트럼¹⁾

Klerkx and Gildemacher(2013: 221)는 혁신연계조직을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혁신연계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혁신주체에 대한 직접지원, 다양한 의제 발굴, 혁신프로젝트의 지속성 유지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Klerkx et al(2009: 222-223)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연계조직의 핵심적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기능은 수요구체화이다. 수요구체화는 현실문제 진단과 예측을 통해 기술·지식·재정·정책 차원에서 혁신주체의 니즈 발굴과 비전수립 등을 이끌어 낸다. 두 번째 기능은 혁신네트워크 형성이다. 이는 관련 혁신주체에 대한 탐색·연계를 통해 혁신주체 간 협업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한다. 세 번째 기능은 혁신프로세스관리이다. 혁신프로세스 관리는 참여주체 간의 소통·전달, 주체 간 신뢰구축, 작업절차 설계 등을 통해 혁신네트워크의 지속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van Lente et al.,2003; Klerkx and Leeuwis, 2009; Klerkx et al., 2009: 222-223; 성지은 외, 2014: 6 재인용).

<표 1> 혁신연계조직의 기능

구분	기능
수요구체화	현실문제 진단과 예측을 통해 기술·지식·재정·정책 차원에서 혁신주체의 니즈 발굴과 비전수립
혁신네트워크 형성	관련 혁신주체에 대한 탐색·연계를 통해 혁신주체 간 협업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프로세스 관리	참여주체간의 소통·전달, 주체 간 신뢰구축, 작업절차 설계 등을 통해 혁신네트워크의 지속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자료: van Lente et al.(2003), Klerkx and Leeuwis(2009), Klerkx et al.(2009), 성지은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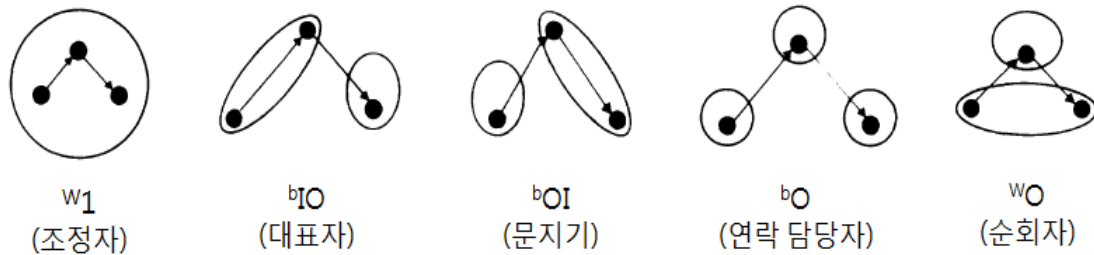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혁신연계조직은 중개인, 지식중개인, 지식브로커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자 적극적 의미에서 혁신과정의 “영향력 있는 중개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2) 혁신연계조직의 유형

혁신연계조직 연구는 정형적 분류에 의하기보다는 각 조직이 위치한 시스템 맥락에 따라 다른 지위와 행동

1) Fisher(2010).

방식 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Boari and Riboldazzi(2014: 684)는 혁신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로서 혁신연계조직이 가지는 시스템 내의 지위와 중개 역할에 관해 논의하면서 연계조직의 역할과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혁신연계조직 유형을 구분한 Gould and Fernandez(1989)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Gould and Fernandez는 혁신연계조직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후, 혁신주체, 혁신네트워크의 경계 관계에 따라 이들 간 상호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그림 2) 참조).



(그림 2) 혁신지원조직 유형의 도식도

첫 번째 유형은 조정자(coordinator)이다. 이 유형은 연계조직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 따라서 집단 내부에서 대부분의 혁신연계 활동이 이뤄지며, 상호작용의 활성화도 또한 높다는 강점이 있다. 두 번째는 대표자(representative) 유형으로 하위집단의 일부가 그 집단의 대표자를 자처하여 정보 교류, 협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문지기(gatekeeper)이다. 문지기 유형은 혁신주체가 선택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과 소통할 외부자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다. 넷째는 연락 담당자(liaison)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계조직은 목표 혁신주체가 속한 하부시스템에서 독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혁신주체와의 연계가 약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혁신주체 간 소통에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순회자(itinerant broker)이다. 이 유형은 연계조직 자체는 다른 하부시스템에서 활동하나 연계조직의 지원을 받는 혁신주체들은 시스템 내 같은 하부시스템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다(Gould and Fernandez, 1989; Boari and Riboldazzi, 2014).

이러한 분류가 형성된 것은 혁신연계조직이 속한 시스템이 지닌 배경 및 중점 혁신활동의 맥락에 따라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과 연계활동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혁신연계조직의 범주가 다양화되면서 이들의 역할활동과 관련된 의제와 전략, 행동 역시 다변화되었다. 혁신연계조직 본연의 역할인 혁신자원의 내부 공유에 주목하거나(Morrison, 2008),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기도 하며(Burts, 2004), 통합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따라 혁신연계 활동이 다양화되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2. 농업·농촌 혁신연계조직 논의

현재 가동 중인 혁신연계조직은 대부분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농업·농촌개발 연구가 유럽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농촌개발정책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농업·농촌개발정책의 초점은 농업부분의 경쟁력 강화, 농촌환경 개선,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다양성 증진 등으로 다각화²⁾되었다(EC, 2006). 특히 과학기술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가

2) 이것은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이 사회 변화에 수반되는 다층적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치로 부각되면서 농촌개발 역시 혁신을 핵심 동인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농업·농촌정책에 과학기술혁신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농업-농촌사회의 연계, 연구개발-실용화 단계 간 연계 단절이 농촌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LEADER 프로그램³⁾ 등에서 농업·농촌·경제·과학기술을 비롯한 농업·농촌시스템의 각 부문을 연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행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시스템의 각 부문과 혁신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혁신연계조직이 주목받게 되었다.

혁신연계조직에 대한 연구는 EU 산하기구인 유럽 농촌개발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이하 ENRD)에서 주도하고 있다. ENRD는 농업·농촌개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정책 및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그 가운데 ENRD에서는 2012년 6월 지식이전 및 혁신(Knowledge Transfer and Innovation)이 일어나는 과정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지식이전 및 혁신 지원활동과 그 전담조직을 혁신중개(Innovation Brokerage)와 혁신연계조직(Innovation Broker)으로 규정하고, 혁신중개 과정과 성공적인 혁신연계를 위한 요인을 정리하였다. 혁신중개 과정은 농촌문제·지역의제 등에 대응하는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 실현에 적합한 혁신주체의 연결, 수요 및 기대 목표의 구체화를 거쳐 파트너십·재정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축의 단계로 제시했다. 이들은 혁신중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연계 대상 및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ENRD, 2013a; 2013b; 성지은 외, 2014).

현재 가동 중인 혁신연계조직은 농촌 협의체 또는 중개조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ENRD는 혁신연계조직의 성격을 지닌 17개 기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ENRD, 2013c). 사례의 혁신연계조직은 1인 컨설턴트, 리빙랩, 지역개발 협의체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혁신연계 작업은 기존 혁신주체의 연합 체제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조직이 위치한 국가·지역·참여 구조·지역주민 참여도에 따라 혁신연계 작업의 방향과 중점활동 또한 달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혁신중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연계조직이 연계 대상에 대한 다방면적 지식을 갖추고 개방성·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 것이다(ENRD, 2013c).

성지은 외(2014)는 17개 해외 혁신연계조직 사례 중 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각 연계조직이 형성된 배경과 구조, 연계 활동,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소 등을 비교하였다(<표 2> 참조). 분석 사례로 선정한 스페인 와인플랫폼(P.T.Vino), 핀란드 농촌리빙랩(Agro Living Lab), 그리스 공공개발기구(ANKA S.A.), 스코틀랜드 축산연합(Quality Meat Scotland) 등의 혁신연계 활동 사례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하여 다각적인 개발활동,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확인했다. 또한 이들 연계조직에서는 혁신연계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과학기술의 연계, 지역 맥락에 대한 유연성, 법·제도·산업·R&D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성지은 외, 2014).

로 정립된 농촌개발정책의 특징은 ①농업과 사회를 통합하는 시각, ②‘수직 계열화→수평적 파트너십’의 경제구조 개편과 연관, ③활동의 다양화·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농업개발모형 구축, ④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과 협력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박덕병·이민수, 2009).

3) LEADER 프로그램은 유럽 농촌지역의 개발 전략으로 지역기반접근, 상향식 접근, 로컬작업 그룹, 혁신적 접근, 통합 및 멀티부문별 접근, 네트워크, 협력 등 7가지 접근 방법을 추구한다 (http://www.elard.eu/en_GB/leader-approach).

<표 2> 해외 혁신연계조직 사례 비교

구분	P.T.Vino (스페인)	Agro Living Lab (핀란드)	ANKA S.A. (그리스)	Quality Meat Scotland (스코틀랜드)
설립년도	2010	2009	1989	1990
연계조직 형태	기술플랫폼	리빙랩	지역단체	공공기관
주요 참여자	와인 업계, 농민, 연구기관, 정부 부처	농민, 농기계 기업, 대학 내 혁신센터	지자체, 지역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농민, 축산 기업, 유통업, 컨설턴트
자금원	스페인 경제부 프로그램	농기계 기업 투자, EU 기금	EU 및 지자체 프로젝트, 지역기업 투자금	육류생산/도축업자에 대한 특별세
연계작업 체계	두 Working Group이 각각 전략 수립과 실행을 담당, EU 장기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전략 전개	기술혁신센터를 기반으로 농민, 농기계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업 연계	혁신지원 활동별 실행부서 구성, 아이디어 및 니즈 탐색 단계 중시	축산업 구성요소별 위원회(advisory committee) 구성, QMS와 파트너 간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진행
주요 연계활동	농업기술, 파생상품, 교육, 홍보	아이디어 수집, 제품 시험 및 평가	기술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축산업 R&D, 품질보증, 미디어 홍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강조 사항	관리체계 형성 및 조정, 중복 배제, 안정적인 자금지원, 체계와 파트너십의 정합성	농민과 제조업 모두에 대한 전문 지식, 연계사례 수용에 대한 개방성, 각 주체의 참여의식	기획 및 관리 능력,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 연계활동 경험, 전달체계의 유연성 확보	전문성, 창의성, 범용성, R&D 이후 단계 지원 확대

자료: 성지은 외(2014), ENRD(2013c)에서 일부 발췌

III. 농업·농촌 활성화 사례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시스템에서 개발의제 간, 혁신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활동을 활성화 시킨 사례로 문경시와 완주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문경시와 완주군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경시와 완주군 사례 모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경시의 농산물가공정책 사례는 2013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제18회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⁴⁾ 정책은 2014년 제19회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둘째, 두 사례 모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오미자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산물 2차 가공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⁵⁾ 완주군

4) 완주군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전라북도, 2013: 15).

5) 6차산업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문경시는 문경의 대표 농산물인 오미자를 바탕으로 농식품 가공 정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⁶⁾

셋째, 두 지역 모두 주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각 사례별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 활성화 주체의 설립 배경 및 비전을 살펴본다. 둘째, 농업·농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협력 행위자에 대하여 논의한다. 셋째, 사례조직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넷째, 혁신연계조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평가한다.

1.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1) 설립 배경 및 비전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이하 완주CB센터)는 완주군 농촌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주민 주체의 지역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완주CB센터와 같이 전문 정보의 수발신과 서포터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2011).⁷⁾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완주군은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방안’ 용역을 희망제작소에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6월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규정에 관한 조례(2009.12.30 조례 제2024호)’에 근거한다.

완주CB센터 설립의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재생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조사, 사업 발굴, 연구 실행,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을 전개했다(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정관, 제2조). 완주CB센터의 비전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실현이며, 미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목표는 센터 설립이후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표 3>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목표변화

구분	목표
2011	1)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2) CB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3) 지역 인재 발굴 및 교육을 통한 CB 사업 주체 양성 4)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역 조사연구 및 DB구축
2012	1) 마을, CB, 귀농귀촌 등 농촌활력사업 통합적 중간지원 2)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핵심인재 발굴 육성 3) 마을공동체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지원시스템 구축 4) 농촌수도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 및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5) 농촌활력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간 연계사업 추진

6) 완주군에서 2012년 처음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7월 기준 52개까지 확대되었다(<http://cafe.naver.com/jisunsa/139>).

7)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기반 지역개발사업 혹은 일자리 사업은 경우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사업추진이 실패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업에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완주CB센터 홈페이지 보도자료, 임경수,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

2013	1)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핵심인재 발굴 육성 2) 현장밀착형 공동체 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제고 3)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을 위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4) 주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5) 전략사업단 발굴을 통한 지역혁신 과제 선도
2014	1) 주민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2) 더 많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중간지원 플랫폼 구축 3) 전략사업단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과제 선도

자료: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홈페이지

2) 주요 협력 행위자

완주 CB센터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마을회사나 CB 공동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지역 내·외부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과 연계·협력하고 있다. 협력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전북협동경제네트워크, 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전북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지역에너지 자립 적정기술 네트워크 등)과의 연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4> 완주CB센터 협력기관

구분	단체명	사업내용	비고
공동체 지원 조직	마을통	마을체험프로그램활성화	지역내부 네트워크
	온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	농촌직업학교(퍼머컬처대학과정)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주)완주로컬푸드	로컬푸드스테이션	
	건강한밥상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체일자리 창출사업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	
	완주문화원	문화공동체 지원사업	
행정	완주군청	행정지원 및 정책협력 및 수행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 및 귀농귀촌	
협력 기관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정책지원	지역외부 네트워크
	전북발전연구원	도시농업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교육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희망제작소	한일포럼 및 사업협력 기관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아카데미	
	함께 일하는 재단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LH	공부방지원사업	
	일본국제교류기금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 포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 협력	
	지역에너지 자립 적정기술네트워크	나는 난로다, 에너지자립관련 협력	
	농업인재개발원	귀농귀촌교육	
	전북협동경제네트워크	전북 사회적경제활성화 협력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북 사회적경제활성화 협력	
	지역파트너	농촌활력사업 협력	

자료: 2013년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리플릿⁸⁾

3) 주요 사업

완주CB센터의 주요 기능을 완주CB센터의 시행사업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완주CB센터 정관에 제시된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11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②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③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와 연구, 출판 및 사업화 ④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⑤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⑥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⑦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⑧커뮤니티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기획과 운영, 지원 ⑨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생산·가공·연구·교육사업 ⑩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⑪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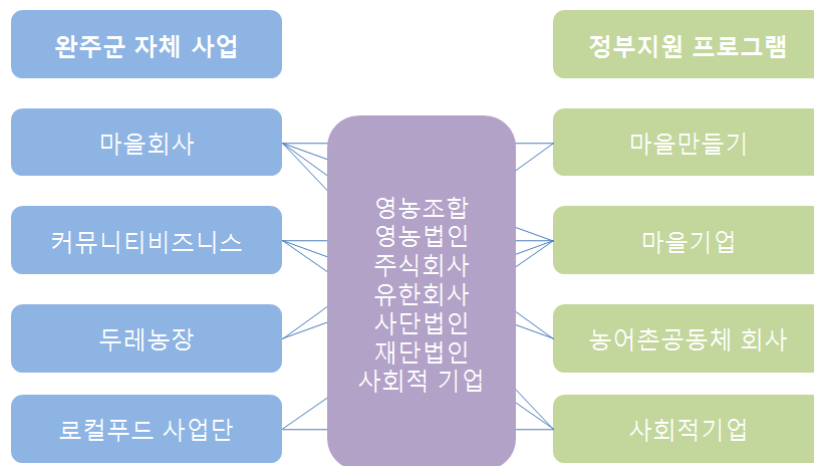
이러한 11가지 사업은 2014년 현재 인재양성, 사업지원, 교류협력, 지역혁신과 같이 4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다. 첫째, 인재양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통합교육, 찾아가는 마을 교육, 신규 마을 및 기존 마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사업지원을 위해 신규사업단 발굴지원, CB매니저 운영, 전략사업단 발굴 육성, 사업기획 및 공동체 조직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교류협력을 위해 사회적 경제 사례 탐방, 공동체 누리살이 한마당(교류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및 국제 포럼, 방문객 안내 및 교육 연수,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지역혁신을 위해 누리살이 포럼, 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5>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현황(2014년)

구분	내용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통합교육 : 32개 신규마을 및 기존마을 주민 찾아가는 마을교육: 2013년 신규 마을 5개소/기존마을 4개소 신규마을 및 기존마을 모니터링 실시 예정 (6월 중) 	
사업지원	신규사업단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현재 마을회사 111개소, CB 공동체 48개소 활동 중 2014년 CB 창업공동체 (9개소)
	CB매니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 매니저 2명 선발 : 사업단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 : 전략사업단 관리 및 행정 지원
	전략사업단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과후 분야): 방과 후 관련 사업단 조직 조합원 교육 (9개 사업단, 20명) 문화(공예공방분야): 연합 사업 및 공예공방 플랫폼 사업 준비(3개 사업단, 10명) 복지(청소년 직업체험 분야):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자유학기제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획 및 공동체 조직 10회 상반기 추진 연기
교류협력	사회적 경제 사례탐방	원주 협동조합지원센터(7월), CB 선진지견학 (10월)
	공동체 누리살이 한마당	완주군 농촌활력사업 총괄 교류회 (11월 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및 국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준비모임 2회 (4월 11일, 5월 3일)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창립모임예정(6월 12일)
	방문객 안내 및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과정 4회 운영 총 96명 :센터 방문객: 총 2537명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운영지원	-
지역혁신	누리살이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포럼(4차, 3월19일,4월18일,4월23일,5월22일) 청년포럼((1차, 4월17일)
	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성과집 정리: 완주CB센터 4년간 실적 정리 및 향후 과제 정리

자료: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완주CB센터는 주민들의 상담내용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의 적합한 연계를 위해 활동한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프로그램과 완주군 마을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두레농장, 로컬푸드 사업을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과 연계한다. 또한, 완주군 내 마을회사 및 CB공동체 사업단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누리살이 한마당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임경수, 2013: 22-26).



(그림 3)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연계 사업(임경수, 2013)

4) 평가

혁신연계조직 논의를 바탕으로 완주CB센터의 활동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완주CB센터의 기능적 측면 첫 번째 특징은 지식중개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CB센터의 주요 사업은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비전 공유 활동이다. 완주CB센터의 교류협력 사업은 사회적 경제 사례지역 탐방,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및 국제 포럼, 방문객 안내 및 교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 공유 활동이다. 그리고 완주 CB센터의 인재양성 사업 중 마을공동체 통합교육과 찾아가는 마을 교육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지식중개인 활동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요구체화 기능이다. 완주CB센터의 인재양성 및 사업지원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위한 마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단 발굴 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동체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식·재정·정책차원의 지원을 위한 활동이다.

셋째, 혁신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연계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과의 연계활동은 미흡하다. 혁신연계조직논의에서는 혁신활동을 위한 다양한 집단 간의 연계활동이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 내의 연계활동과 더불어 과학기술혁신조직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활동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조직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완주CB센터는 지역의 다음 혁신의제로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활동 관

9) 완주군은 완주CB센터가 2012년 주최한 ‘농촌,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라는 주제의 한일 포럼을 계기로 2013년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로컬에너지를 완주군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겨레, 2013.12.30).

런 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2.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¹⁰⁾

1) 설립 배경 및 비전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는¹¹⁾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업인의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였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상품화 시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증가와 함께 농산물 상품화 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설립한 것이다(농촌여성신문, 2010.10.25).

본 센터의 비전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산물가공창업보육시스템 및 지원체계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 잘사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는 것이다. 목표는 ①지역농산물의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적 재산권 확보 ②농업인 가공기술교육 및 소비자 지산지소운동교육 ③지역농특산물의 가공기술 이전 및 산업화 추진 ④성공적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⑤지역농산물가공업체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개발 지원이다(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2014년 브로슈어).

<표 6>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구분	내용
비전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산물가공창업보육시스템 및 지원체계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 잘사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 행복한 농촌 실현
목표	1) 지역농산물의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적 재산권 확보 2) 농업인 가공기술교육 및 소비자 지산지소운동교육 3) 지역농특산물의 가공기술 이전 및 산업화 추진 4) 공동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농산물가공업체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개발 지원

자료: 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2014년 브로슈어

2) 주요 협력 행위자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는 지역경제와 농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민 및 공동체 조직, 지역 내·외부 행정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고 있다. 본 센터는 지역특산품인 오미자와 사과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가공제품의 상품화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체지원조직이나 행정지원 조직, 협력기관 모두 오미자, 사과 품목으로 특화되어 있고 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디자인전문그린애드 등의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10) 전담부서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 가공 담당이다.

11) 이 명칭은 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확장되면서 가공지원센터, 농업인공동이용 사과주스플랜트, 산채 처리시설, 향토음식학교,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칭된 것이다.

<표 7>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협력기관

구분	단체명	비고
공동체 지원 조직	사과발전협의회, 농산물가공연구회(우리음식연구회, 오미자식품연구회, 유기농음식 연구회 등), (사)문경오미자 생산자 협회, 오미자 연구회, 문경 사과 연구소, 문경 오미자 가공 연구소, 산동농협(오미자), 오미나라(오미자 복합 체험 공간)	지역내부 네트워크
행정지원	문경시청 위생 담당, 문경시청 시장개척 담당,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담당,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오미자연구담당,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담당	
협력기관	문경대학산학협력단 경북대학교(식품학과 교수 11명 자문 및 협동연구), ICT center, 대구힐링푸드사업단, 대구카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산학협력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자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디자인전문 그린애드, 소상공인지원센터, 중기청 농공상융합비즈니스 센터, 청송군(사과주스플랜트), 영주시(힐링푸드벨리), 봉화군(힐링푸드벨리), (사)한국식품발전협회, (주)광동제약(계약재배),(주)종근당건강(계약재배, 2013.12월 오미자 가공공장설립, 문경시 산양면)	지역외부 네트워크

자료: 김미자(2014: 38) 수정

3) 주요 사업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의 주요 기능은 교육, 가공기술 및 상품개발, 컨설팅, 창업지원, 교류협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센터는 기존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원료생산자에서 식품공급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회 육성 및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미자, 2014: 35).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센터 내 향토음식학교에서는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센터는 농식품가공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R&D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경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오미자의 가공 기술개발 및 상품 개발을 비롯하여 기타 약돌돼지·표고버섯·산채 가공 기술 개발 등을 개발하였다¹²⁾. 셋째, 기술이전, 기술보완, 가공업체 애로기술 상담실 운영 등과 같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창업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과정, 창업보육과정, 창업결정단계, 창업 후 지도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센터는 식품제조 가공 허가를 받고, 창업 농가는 전문 유통업 허가를 받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마지막으로 센터는 농산물가공의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농식품개발 사업 협약체결, 상위 정부 및 협력기초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가공업체/농민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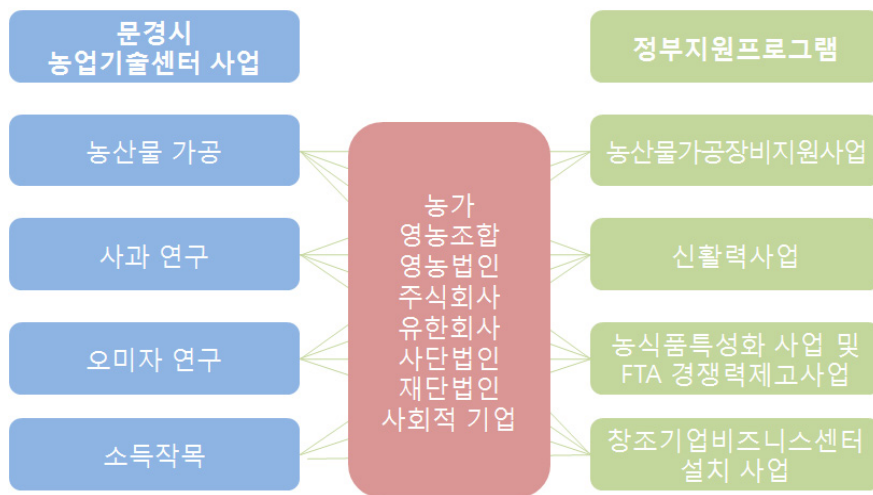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교육	관련연구회육성, 대상별 맞춤교육, 소비자교육
가공기술 및 상품개발	사과·오미자 가공기술 및 상품 개발, 기타 특산물 및 지역먹거리 가공기술 개발, 개발기술 자료화(매뉴얼화)
컨설팅	기술이전, 기술보완, 가공업체 애로기술 상담실 운영 등
창업지원	창업보육프로그램(예비과정, 보육과정, 창업결정과정, 창업 후 지도과정)
교류협력	정부·기업·농민·지역단체 등과 농식품개발 사업협약체결 등

자료: 문경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2014년 브로슈어 재구성

12) 이러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노력의 결과 가공기술개발 5개 분야 158건의 기술을 개발했으며, 115점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농업 생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먹거리인 문경산채비빔밥, 약돌샤브샤브 등 전통먹거리를 상품화하였다(김미자, 2014: 36-38).

13) 일반 농가의 경우 식품 제조 가공업을 위해 높은 설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식품위생기준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가의 손쉬운 식품제조가공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농촌여성신문, 2010.10.25).

본 센터는 문경시의 농산물가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프로그램과 센터사업을 연계하여 통해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본 센터 사업은 중앙정부의 농산물가공지원, 신활력, 농식품특성화 및 FTA경쟁력제고,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의 사업과 연계되고 있다.



(그림 4)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 주요 연계사업(자료: 저자작성)

4) 평가

혁신연계조직 논의를 기반으로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의 활동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중개인 및 지식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노력은 정보중개인 및 지식중개인의 기능을 대변한다. 그리고 주요 특징적인 기능은 농산물 가공업을 위한 컨설팅,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센터의 R&D 사업을 바탕으로 한 정보전달 측면이 강하다. 또한, 기술이전, 가공업체 애로기술 상담과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둘째, 수요구체화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과 농업인들의 가공업 참여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립으로 기반을 구축했으며, 농업인이 원료 생산자에서 식품공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등 농업인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재정·정책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셋째, 지역농식품의 상품화를 위한 2차 가공상품화를 위한 조직들과의 연계협력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경대학산학협력단, 경북대학교식품학과,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디자인전문그린애드, 2차 가공상품화를 위한 조직들이다. 반면, 1차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구·농기계분야, 농식품 저장·유통 분야 과학기술조직과의 협력과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추진해온 주체로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조직과의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다양한 혁신조직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높여 왔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첨단온실 신축, 식물공장형 생산시스템 구축,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사업¹⁴⁾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도·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온실 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모바일 PC등으로 알려주어 손쉽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다 (CNB 뉴스, 2014.08.29).

IV. 결론 및 시사점

농업·농촌 활성화 사례의 주체로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와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의 사례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농촌 시스템에서 유리되어 있던 다양한 행위자 간의 연계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완주CB센터는 지역 내 공동체 조직 간 연계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 CB센터의 외부네트워크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가 활발하다.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는 지역농민과 가공업체 간의 연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특징은 식품가공 관련 행위자들과의 연계가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중개 활동 및 수요구체화 활동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식중개활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정책수요자들이나 혁신행위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표준화 및 매뉴얼화를 통한 교육 등을 의미 하는데, 완주사례와 문경사례모두 교육기능과 컨설팅(사업지원) 활동을 통해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수요구체화 기능은 지식중개활동과 더불어 교육활동과 컨설팅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문제나 수요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정책·기술지원 및 비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완주CB센터는 커뮤니티비즈니스정책, 로컬에너지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넘어 지역 먹거리 문화산업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표 9> 완주CB센터 및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 사례정리

구분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
조직형태	재단법인	공공기관
자금원	민간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완주군	중앙정부 공모사업, 문경시
연계 특징	지역공동체조직+지역공동체조직 지자체+지역주민 지역주민+외부시민단체(NGO)	지역농민+지역가공업체 지자체+지역주민
	완주CB센터를 중심으로 완주군, 완주농업기술센터, 지역 내 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	문경농식품특성화센터를 기반으로 농민, 가공업체연계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계	농식품 가공 상품화 관련조직 간 연계
기능	지식중개인기능, 수요구체화기능	지식중개인기능, 수요구체화기능
활동내용	인재양성, 사업지원, 교류협력, 지역혁신	교육, 가공기술 및 상품개발, 컨설팅, 창업지원, 교류협력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혁신연계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스페인과 핀란드 등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혁신연계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기 때문이며, 농업·농촌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지역들은 혁신연계조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활동관련 조직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간의 적극적인 연계협력활동이 필요하다. 혁신연계조직논의에서는 시스템 실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연계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기술실험을 시행하고 그것을 확장·심화·고도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적 경제와 과학기술계의 만남이 필수적이다(성지은 외, 2014: 5).

따라서 서로 유리되어 진행되어 왔던 농업·농촌개발활동과 과학기술혁신활동 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민과 혁신주체 간 등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연계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CNBNEWS (2014). “농식품부,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가 신청 받아”, 2014.08.29.
- 김미자(2014),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시스템 개발과 보급 사례”, 제1차 행복한 농촌만들기 토론회 발표자료, 2014.3.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성기 편(2013),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기업」. 파주: 아르케
- 농촌여성신문 (2010). “농산물 가공지원으로 농가소득 높인다”, 2010.10.25.
- 디지털타임즈 (2014). “미래로가는 농촌-팔방미인 문경오미자”, 2014.08.04.
- 박덕병·이민수 (2009), "EU의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123-162.
- 성지은·박인용·김종선(2014), “농업·농촌 활성화와 혁신연계조직”, 동향과 이슈, 제1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송위진(2007), “총체적 혁신정책의 이론과 적용: 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기술혁신학회지」, 10(3): 555-579.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2011).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이야기: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완주 CB 홈페이지.
- 이코노미21 (2014), “지역자립과 순환 중심의 완주군 농촌정책”, 2014. 9. 9.
- 임경수 (2013),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 간 역할 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발전방향 정기 세미나 자료집. 지역농업연구원
- 전라북도 (2013),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2013년도 슬로시티 지역리더교육2」.
- 정미애·김승현·이유아·안두현·김수미(2013), 「혁신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 방안」, 정책연구 13-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겨레 (2013). “농촌형 로컬에너지-전북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 선언”, 2013.12.30.
- Batterink, M. H., Wubben, E.F.M. and Klerkx, L.(201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SMEs) Arising from Ethnically, Racially and Religiously Diverse Population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2(1), pp.47-76.
- Boari, C. and Riboldazzi, F.(2014), How knowledge brokers emerge and evolve: The role of factors' behaviour, *Research Policy*, 43(4), pp.683-695.
- Burt, R.S.(2004), Structural Holes and Good Ide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2), pp.349-399.
- European Commission(EC)(2006), *The EU Rural Development Policy 2007-2013*.
- European Commission(EC)(2014),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towards 2020*.
-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ENRD)(2013a), *Phase 1 Report*, Focus Group on Knowledge Transfer & Innovation.
-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ENRD)(2013b), *Towards Successful Innovation Brokerage*, Phase 2 Report on successful innovation brokerage.
-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ENRD)(2013c), *Study Material & information*, Annex of Phase

2 report on successful innovation brokerage.

- Fisher, C.(2010), *Knowledge Brokering and Intermediary concepts*, Analysis of an e-discussion on the Knowledge Brokers' Forum, 2010. 9-10.
- Gould, R.V. and Fernandez, R.M.(1989), Structure of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19, pp.89-126.
- Klerkx, L. and Gildemacher, P.(2013), Strengthening The role of Innovation Brokers in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Module 3, Thematic note 4, pp.231-230.
- Klerkx, L. and Leeuwis, C.(2009), The emergence and embedding of innovation brokers at different innovation system levels: Insights from the Dutch agricultural sector,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6(6), pp.849-860.
- Klerkx, L., Hall, A. and Leeuwis, C.(2009), Strengthening agricultural innovation capacity: are innovation brokers the answer?, *International Journal of Agricul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logy*, 8(5), pp.409-438.
- Lind, M. and Persborn, M.(2000), Possibilities and risks with a knowledge broker in the knowledge transfer process, *Presented at the 42th Annual Conference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2000.9.12-14.
- Michaels, S.(2009), Matching knowledge brokering strategies to environmental policy problems and setting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12(7), pp.994-1011.
- van Lente, H., Hekkert, M., Smits, R. and van Waveren, B.(2003), Roles of systemic intermediaries in transition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7(3), pp.247-279.
- Winch, G. and Courtney, R.(2007), The Organisation of Innovation Brokers: An International Review,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9(6), pp.747-763.

ENRD 홈페이지 <http://enrd.ec.europa.eu/>

문경시농업기술센터 <http://www.mgatc.com/code/main/index.html>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anjucb.org/>